



“또 올게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플랫폼에서 한 부모가 고향에서 설을 쇠고 떠나는 자녀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못믿을 정치, 다 바꾸겠다”

국회의원·예비후보들 설민심 들어보니

정부 실정 비판...서민들 생활고 호소

‘선거의 해’에 맞은 민족 대명절 설에는 어느 해 보다 정치 이야기가 무성했고 어려운 생활 형편 탓에 경제 애기도 빠지지 않았다.

설 연휴 기간 찾아온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찡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따랐다.

지역민들은 또 총선을 앞두고 누가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을지,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탈락할지, 민주당 외 어느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총선에 도전하는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정보를 주고 받았다.

나아가 연말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누가 될 것이고 이어 대통령은 누가 될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느라 각종 모임자리는 열띤 ‘정치토론의 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MB정부 실정’ 비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줄고 물가와 기름값은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디도 스 공격, 내곡동 사건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전했다.

광주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설 민심은 엄동설 한 보다 더 짙고 얼어붙었다”며 “1% 부자정권과 99% 서민들의 힘겨운 삶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설 전야 대한민국의 풍경이었다. 매운 쪽파보다 더 눈물 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한·

미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미흡한 지원책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본격화하는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정치권 불신’ 물갈이 열망으로=현실이 어렵다 보니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다.

민주통합당 송갑석 예비후보는 “일부 호남 중진들이 제 역할을 못한 채 기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 퍼지는 ‘물갈이론’ 수준이 예상을 뛰어 넘고 있다”며 “나아가 5년 동안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정권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상갑 예비후보도 “현 정부는 물론 현역 의원들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새 인물을 찾아야 한다

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고 전했다.

◇총선과 대선에 누구를?=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만큼 이번엔야말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순천시장 출신의 민주통합당 노관규 예비후보는 “지역의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의도 정치인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은 정치공학적 입장 때문에 지역이 무시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역발전의 미래를 보장할 역량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일당독주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총선과 대선에는 지역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극장 문 닫았다

광주 마지막 향토극장 폐관 100년 역사 마감

100년 가까이 광주 도심 총장로를 지켜온 무등극장(현 무등시네마)이 24일 마지막 상영과 함께 문을 닫았다. 이로써 1935년 개관해 예술영화 등을 재상영하며 맥을 이어온 광주극장을 제외하면 광주에서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는 향토극장은 모두 사라졌다.

〈관련기사 13면〉

1920년대 ‘제국관’(현재의 총장으로 위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해온 무등극장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번성으로 부진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8개 가운데 4개 관에 대해 폐업신고하고 이날 나머지 4개 관의 상영도 중단했다.

이날 무등극장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화는 김윤석·유아인 주연의

‘완득이’. 10시 50분까지 5관에서 상영된 이 영화를 끝으로 영업을 마감했다.

영화 상영관으로서 역활은 다했지만 무등극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새 면모를 갖추어갈 예정이다. 이미 건물 지하에는 레스토랑이, 1층에는 의류점, 커피숍, 편의점 등이 이미 들어섰다.

극장 측은 2~5층 가운데 일부를 임대해 업종을 바꾸고 4·5층은 인디밴드 등 무대 구하기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추억이 서린 만남의 장소였던 극장이 사라지자 시민도 아쉬워하

고 있다. 이날 영화를 본 김승희(47·여)씨는 “명절 등 휴일이면 어김없이 총장으로 복관 무등극장을 찾곤 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안타깝다”며 “광주 시민의 추억이 깃든 명소인 만큼 새롭게 변모했으면 한다” 말했다.

오권수(72) 무등시네마 회장은 “극장이 한창 잘나가던 시절 당대 최고 배우였던 최재성씨나 임권택 감독이 무대 인사를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11개 관이었던 광주 영화시장이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관에 밀려 침체하고 영입부진으로 문을 닫아야하는 시점에 이르니 침통한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대적 물갈이 예고...정치신인 봇물

광주·전남 총선 경쟁률 4.5대1...전국 1477명 등록

4·11 총선에 나설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90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예비후보들이 1500명에 달해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24일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는 8개 선거구에 36명이 예비후보를 등록해 4.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은 20개 선거구에 54명이 등록해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물갈이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 무대에

도전장을 내는 신진 인사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해 예비후보 등 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여야 모두 역대 어느 때보다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여 새 피 수혈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토대로 하위 25%를 공천에서 일괄 배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민주통합당은 한 명씩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공천개혁’을 강조, 뒷발질 호남을 필두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해 놓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된 전국의 예비후보자 수는 광주와 전남 20개 선거구를 포함, 총 245개 선거구에 1477명으로,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경쟁률은 ▲서울 6.2대 1 ▲부산 5.7대 1 ▲대구 6.2대 1 ▲인천 7.3대 1 ▲대전 6.8대 1 ▲울산 4.3대 1 ▲경기 6.6대 1 ▲강원 6.1대 1 ▲충북 4.3대 1 ▲충남 5.9대 1 ▲전북 5.4대 1 ▲경북 5.5대 1 ▲경남 6.9대 1 ▲제주 6.3대 1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완도↔제주 바다를 단 100분만에 쾌속 질주!!

제주 가는 가장 빠른 배, 블루나래호 취항!

블루나래호의 신규 취항 기념

50% BIGEVENT

블루나래호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 (~2012. 2. 9)

Event 1 여객운임 50%할인(15,000원), 터미널이용료 별도

Event 2 차량요금 45,000원 특별 적용(전차량)

블루나래호 운항 스케줄 광주·완도 무료 셔틀버스 제공

완도	09:00출발 10:40도착	제주
	15:00출발 16:40도착	
제주	12:00출발 13:40도착	완도
	17:50출발 19:30도착	

신개념 제주여행 시대 개막

100분이면 세계 7대 경관 제주도와 천혜의 자연 완도를 오가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쾌적한 선상 경험 보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기억에 남을 선상 추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1688-2100